

## 위암환자에서 근치적 절제술후의 체중감소와 예후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정호영, 유완식

(배경) 수술 전 체중감소는 위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종양에서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. 악성종양의 근치적 절제술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재발의 치료를 위해서이다. 저자들은 위암환자의 근치적 절제술 후의 체중감소가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지, 따라서 예후인자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일반외과에서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1년 이상 생존하였고, 평소 체중, 수술 당시의 체중, 수술 후 6개월 및 12개월의 체중을 전향적으로 관찰한 환자 5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은 남자 366명, 여자 202명이었고, 중간 나이는 57세이었다. 이들의 수술 전 체중감소, 수술 후 첫 6개월 동안과 다음 6개월 동안의 체중감소와 예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. 생존율은 Kaplan-Meier 방법으로 산출하여 log-rank 방법으로 비교하였고, Cox의 비례 위험 모형에 의해서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.

(결과) 전체 환자의 약 1/3에서 수술 전 체중감소가 5% 이상이었고 수술 전 체중감소는 위암의 병기에 비례하였다( $p=0.001$ ). 수술 후 첫 6개월 동안의 체중감소는 위암의 병기와 비례하지 않았으나( $p=0.500$ ), 다음 6개월 동안의 체중감소는 병기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( $p=0.052$ ). 수술 당시에 평소보다 5%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던 경우의 5년 생존율은 73.1%이었고, 평소 체중의 95% 이상 유지한 경우의 5년 생존율은 84.0%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( $p=0.0018$ ). 수술 후 12개월의 체중이 수술 후 6개월의 체중의 95% 이상을 유지한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은 83.5%이었고 5%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던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은 63.6%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( $p<0.0001$ ). 단변량 분석에서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인자들(장막침윤, 림프절 전이, 위 절제범위, 수술 후 두 번째 6개월 동안의 체중감소, 보조화학요법, 수술 전 체중감소)의 다변량 분석에서 장막침윤( $p<0.0001$ ), 림프절 전이( $p<0.0001$ ), 위 절제범위( $p=0.0001$ ), 수술 후 두 번째 6개월 동안의 체중감소( $p<0.0001$ )가 독립적인 예후인자로 나타났다.

(결론)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의 추적관찰 중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5%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으면 예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며, 재발 부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하고 근치적 치료가 가능한 재발이라면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겠다.